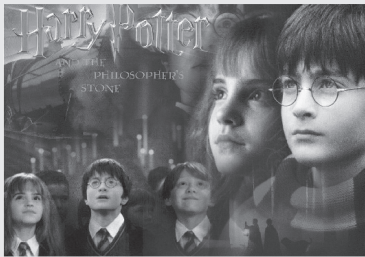


스미소니언박물관의 선택
December 8, Washingtonpost



스미소니언박물관 중 하나인 항공우주박물관은 15억 원 이상의 장비를 들여 신설한 아이맥스크장에서 영화 〈해리포터〉를 상영한다고 발표했다. 영화 상영 결정은 공공박물관이 당연히 추구해야 할 교육과 같은 프로그램과는 거리가 멀지만 박물관의 사업관련 담당자는 “이는 잠재적인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영화 〈아폴로 13호〉, 〈스타워즈〉가 이미 항공우주박물관에서 상영한 바 있지만, 우주 항공과 관련해 상영한 이 두 편의 영화와는 달리 〈해리포터〉는 현금을 벌어들이는 일 외에는 다른 기대치가 없을 것이다. 만약 박물관이 돈을 벌려는 것을 목표로 해 왔다면 스미소니언의 박물관들을 통해 그 어떤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다양하고 색다른 이벤트나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1864년에 영국인 제임스 스미슨(James Smithson)에 의해 건립된 스미소니언박물관은 16개의 박물관과 미술관, 동물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세계 최대의 박물관이다.

영국예술위원회의 10대를 위한 프로그램
영국예술위원회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예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EW(Enterprise Week)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1월 14일부터 20일까지 일주일 동안 추진된 이 프로그램은 10대들이 그들의 생각과 상상력을 직접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부처부터 관련 사업체에 이르기까지 481개 기관이 참여하여 총 1,172건의 이벤트를 개최했다. 2004년의 경우 15만 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이벤트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계에 자각변동의 원인이 될 8천억 원이 넘는 민간 기부금
December 6, The Guardian
영국 단체(the Charity Arts & Business)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예술에 대한 민간 기부금이 지난 2년 동안 393만 £(7천억 원)에서 452만 £(8천억 원)로 증가했다. 영국 문화예술계는 활성

화된 민간기부금이 예술에 대한 공적 기금 삭감 원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개인 기부액 역시 10%의 증가를 나타냈다. 2004/2005년 기부액 중 가장 큰 부분은 문화유산 보존과 관련된 프로젝트로 163만 £를 차지하고 있으며, 박물관이 43만 £, 연극분야가 31만 £, 시각예술은 20%가 하락되어 54만 £에 그쳤다. 기부액의 가장 큰 상승은 연극분야로 나타났다. 작년 한 해 동안만 40% 증가되었다. 특히 개인 기부자에게 티켓을 제공하는 공연 시즌으로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던 국립극장의 활동이 사업적 노력의 영향력을 실감할 수 있는 사례가 되었다.

모스크바에 부는 공연장 건설
November 30, The New York Times
현재 모스크바에서는 러시아 수도로서 문화적 위치를 입증하기 위한 방편으로 석유와 공산품을 통해 벌어들인 돈으로 공연장 건설이 한창이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정부 자금 약 400억 원이 투입된 공연장(The Cetera) 개관식에 참여하여 문화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어떤 도시에서도 볼 수 없는 일이 현재 모스크바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공연장 건설도 그 중 하나이다”라고 한 관계자 말했다. 공연장에 필요한 모든 시설이 가장 최근 것으로 객석 의자 역시 최상의 품질을 자랑하며 푸틴대통령은 “우리도 이 정도는 ……”라고 말했다고 한다.

프랑스 현대미술관 개관
November 21, The Art Newspaper
프랑스 국가에서 운영하는 새로운 현대미술관이 파리 남쪽 교외 지역에 문을 열었다. 이 미술관은 1950년부터 현재까지 국가 소유인 프랑스 작가의 현대미술작품 1,000여 점을 소장하게 된다. 2년에 걸쳐 투입된 약 370억 원의 예산은 프랑스 문화부와 두 지역위원회에서 부담했다. 프랑스 건축가(Jacques Ripault)에 의해 설계된 이 미술관은 영구 설치작품, 기획전시공간 등을 포함하여 13,000평의 규모를 자랑한다. 다니엘 뷔린(Daniel Buren), 크리스티안 볼탄스키(Christian Boltanski)의 작품들이 ‘현대적 삶’, ‘벽’ 등과 같은 테마를 가지고 전시되며, 개관전은 자크 모노리(Jacques Monory)의 회고전으로 2006년 2월 까지 계속된다.

프리다 칼로(Frida Kahlo)와 데킬라
November 26, The Guardian
미국에서 판매하는 데킬라에 프리다 칼로(Frida Kahlo)의 이름을 넣은 ‘프리다 칼로 데킬라’가 시

판되고 있다. 멕시코의 고지대 지역에서 생산되는 이 데킬라는 5만원에서 9만원대로 3가지 종류가 판매된다. 이번 제품 생산을 주도한 프리다 칼로의 조카는 “프리다 칼로를 캐리커화 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큰 모험이 될 것이다. 데킬라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술이었고, 그녀의 생애와 항상 함께 했던 술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프리다 인형도 판매할 예정이며, 그녀의 이름을 붙인 브랜드를 등록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면 프리다 보석, 옷 등도 런칭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47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한 작가의 상업화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프리다 칼로와 몇 년을 같이 살았던 한 미술평론가는 “누가 그 조카에게 프리다 칼로의 이름으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권리를 주었는지 모르겠다. 작가로서의 프리다 명성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 프리다가 매일 데킬라를 마신 것은 그녀의 유년시절에 겪었던 사고의 고통을 잊기 위함이었다”고 전했다.

문학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NEA 프로그램
November 13, Post-gazette.com



미국연방예술기금(NEA)이 문학이 공룡의 길을 향하고 있다고 경고한 지가 1년이 넘었다. 2004년 7월에 보고된, 제목만으로도 불길한 ‘위험에 처한 독서’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인들의 독서인구는 특히 문학(소설, 시, 연극) 분야에서 1988년에서 2002년까지 10%의 하락세를 보였다. 18세에서 24세까지의 젊은 층에서는 28%로 가장 큰 하락률을 나타냈다. 작가들은 ‘우리가 이점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현재 NEA는 ‘The Big Read’라는 미국 대중문화에서 문학의 역할을 회복시키기 위한 계획을 수립 중이다. 내년 초 진행 예정인 이 파일럿 프로그램은 여섯 개 도시에서 기금을 지원받는다. NEA 회장은 ‘The Big Read’는 미국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문학프로그램으로 사회적 논란에 대한 공공의 토론을 고무시키는 방안으로 소설을 이용하는 취지의 프로그램이라고 밝혔다. 이는 시애틀에서 피츠버그에 이르는 도시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예정이며, 지역공동체의 노력을 필요로 한다. 이문희 예술위원회 국제교류팀